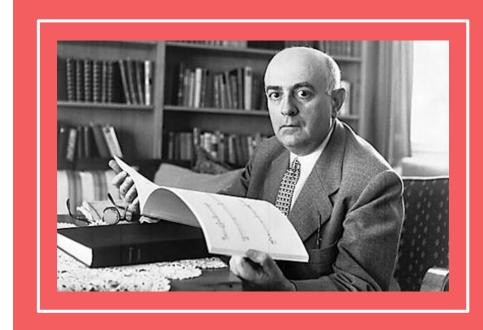
아도르노



목차

- ❖ 일생
- ❖ 주요 사상, 유명 구절
- ❖ 일화
- ❖ 질문
- ❖ 참고문헌

일생

190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
1920년대 초 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다양한 학문을 공부.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음악학, 문학, 미술 등)
1938년	유대교에 대한 나치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mark>미국</mark> 으로 망명.
1950년대	다시 독일로 돌아옴.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부정 변증법' 출간.
1960년대 말	'68혁명' 비판. 학생들의 비난을 사다가 1969년 스위스로 떠났고, 심근경색으로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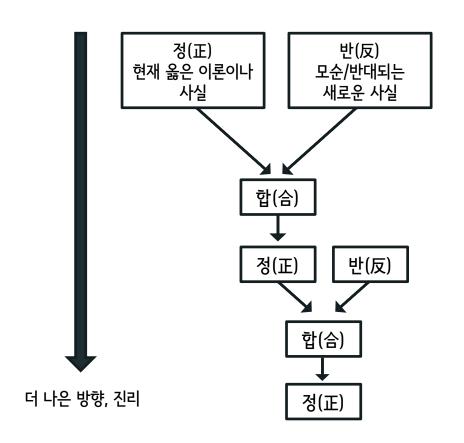
일화



부정변증법

❖ 헤겔의 변증법>> 정(正)-반(反)-합(合) 의 원리

아도르노: 진리 = 절대 다수의 패권, 소외와 배제 발생



부정변증법

- ❖ 진리 = 나치
- ❖ 소외, 배제 = 유대인



- ❖ 근대사회 = 계몽의 시기
- ❖ 계몽 = 지배집단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
- ❖ 우리에게는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유가 부족하다
 - >>> 대중문화
- ❖ 문화산업론: 자본주의에 기반한 문화산업이 대중 기만을 내포하고 있음

"문화 = 상품"

"표준화, 대량생산, 복제, 소비"

"문화산업은 자신이 끊임없이 약속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 소비자를 끊임없이 기만한다.

줄거리나 포장이 바뀌는 데서 오는 재미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질문

음악, 영화, 음식, 패션, 취미

가치관, 외모, 직업, 생활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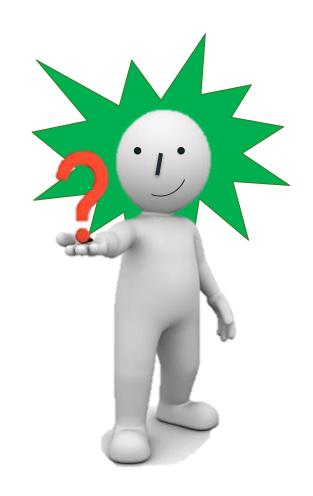
옳고 그름,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

질문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과 사회가 정의한 개념의 차이를 경험하거나 그 둘이 충돌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예시

- 행복한 삶이란?
- 우월함과 열등함



발표자의 답변 - 홍지예

사회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성격이라 함은 사회성, 사교성, 등 외향적인 요소들이 가장 먼저 떠오름. 그래서 본인도 위와 같은 요소들을 기르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지만 생각해보면 내향적인 성격들이 가진 강점인 관찰력이나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잡아내는 능력, 세심함, 경청하는 자세 들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중요하고 바람직한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그 마땅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듦.

발표자의 답변 - 박초현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만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느낌.

특히나 고등학교의 환경 조성이 학생들이 더 그렇게 느끼게끔 만듦.

과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이 좋고, 당연한 것인가?

참고문헌

테오도르 아도르노, 네이버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645260&memberNo=2450083 0&searchKeyword=%EC%95%84%EB%8F%84%EB%A5%B4%EB%85%B8&searchRank=4

https://blog.naver.com/ebaang/954363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92553&cid=41908&categoryId=41940

Holocaust, 구글